

退溪 李滉先生の 教育學說 研究

李 相 魯

目 次
I. 序 論
II. 教育目的論과 그 背景
III. 教育方法의 原理
IV. 結言—退溪教育學說의 現代의 觀照

I. 序 論

어떤 사람의 教育思想이던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지는 다른 隣接思想들과 類關된다. 例컨대, 그 사람이 지니는 宇宙觀, 人間觀, 社會觀 그리고 價值觀等과 密接하게 關係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教育思想을 깊이 探索하기 위해서는 前述한바와 같은 思想들間的 類關係를 通해서 推論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思想들은 文化가 斷切된 孤島에서 創造되는 것이 아니라 既成文化나 傳統과 같은 歷史的 背景과도 깊이 類關된다. 이런 뜻에서 筆者가 企圖하는 退溪先生の 教育學說 研究는 退溪先生の 思想體系가 形成되기 까지의 그 學問的 그리고 思想的 背景을 探索해 보아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退溪先生の 學問과 그 思想的 背景을 探索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다. 退溪全集이나 年譜等의 文獻에 直接 나타나 있는 事實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2歲 때에 그의 叔父인 松齋 李堉에게 論語를 배웠고, 14歲 때에 陶淵明의 詩를 좋아하며 그 사람됨을 欽慕하기 시작했으며, 18歲에 邵康節의 太極論을, 그리고 19歲때 張橫渠의 太虛說을 읽고 理解하기에 이르렀고, 20歲때 周易을 읽기 시작했고, 23歲때 서울로 올라가 太學(成均館)에 遊學하였다.

이와같은 記錄을 미루어 볼때 特定人을 스승으로 모시고 一貫性있게 그 思想을 傳受받아가며 修學한 것 같지는 않다. 다음 修學期에 特記할 事項은 退溪先生の 先考 李植가 그의 初娶(禮曹正郎 兼 春秋館 記注官 金漢哲의 女) 妻家에서 물려받은 많은 書籍(金漢哲의 外外高祖 進賢館 大提學 南佐時가 所藏한 것인듯)을 先考나 叔父를 거쳐 이 書籍들을 玩讀하여 많은 影響을 받았을 것이라는 事實이고, 退溪先生이 19歲때 性理大全을 入手하여¹⁾ 읽고 「性理大全을 읽어보니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리는 듯 하였다. 오래 두고 읽으니 뜻이 차츰 알려져 入門을 얻은 것 같아 비로소 性理學의 體段이 特異한 줄을 알게 되었다」²⁾고 自述하였음을 良齋 李德弘이 言行錄에 記錄하고 있다. 또 그는 心經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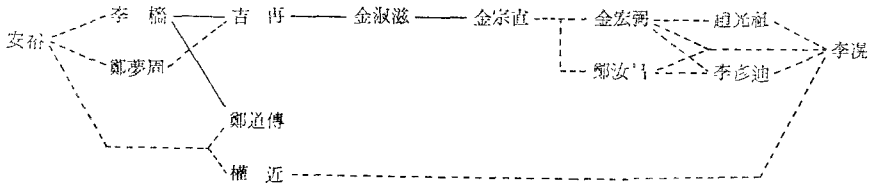
1) 大同文化研究院刊, 退溪全書 卷 2, 言行錄 p.643 下段.

2) 上揭書, 言行錄 p.643 下段.

註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心學의 淵源과 心法의 精微함을 알고 平生 이책을 神明과 같이 믿고 嚴父와 같이 尊敬하였다³⁾고 記錄하고 있다. 또 中宗 38년에 王命에 依하여 朱子 大全이 印刷되니 退溪先生은 비로소 이런 책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求해 溪山에 돌아와 閉門靜居하면서 精讀하였다고 鶴峰 金誠一은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⁴⁾ 「先生께서 朱子 大全을 서울서 求해 가지고 오신 뒤로부터 大門을 닫아 걸고 조용히 精讀하기에 熱中하여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中斷하지 않았다. 弟子들이 더위에 病나시지 않을까 걱정하면 先生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 속이 다 시원하여 저절로 서늘한 기운이 생겨 더운 줄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 무슨 탈이 나겠는가”라고 하신다.」

退溪先生의 學問과 思想은 經, 禮, 詩, 史, 算, 天文等 넓은 分野에 걸쳐 廣範하고 該博하나 위에서 미루어 볼 때 大體로 많은 文獻들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傳受된 內容을 資料로 삼아 그 資料 속의 思想들의 根幹을 크게 毀損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獨創性 있게 體系지우고 解說된 것으로 推論되며, 그것은 傳來의 傳統的인 儒學思想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特別히 宋學(周子, 二程子, 朱子等의 理論)에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特別히 趙靜庵行狀, 晦齋先生行狀等을 남기면서 鄭汝昌, 金宏弼, 趙光祖, 李彥迪을 四賢으로 並稱한 것으로 미루어 이분들의 思想에 마음으로부터 私淑하는 점이 많았던 것으로 推論된다.

이런 點에 미루어 선비로서의 忠節이나 節義를 떠나 退溪先生의 學問과 思想의 系譜를 이제 海東名臣錄⁵⁾ 등의 文獻을 分析하여 그 淵源을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의 學統系譜

II. 教育目的論과 그 背景

退溪先生의 教育目的論을 探索하기 爲해서는 먼저 그 背景이 되는 人間觀부터 알아 보는 것이 그 順序인 것 같다. 先生의 人間觀은 天命觀에 緣由되는 天命新圖와 進聖學十圖劄과 聖學十圖中 第六 心統性情圖를 통해 그 概要를 살펴볼 수 있다.

天命圖說 後叙에 依하면⁶⁾ 天命新圖는 秋齋 鄭之雲의 所作인 天命蕃圖를 退溪先生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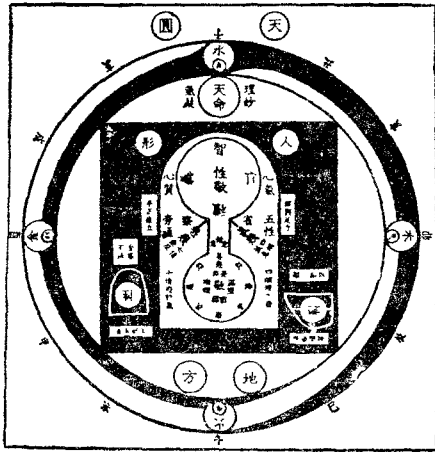
3) 上揭書, 言行錄 p.644 上段.

4) 上揭書, 言行錄 p.939 上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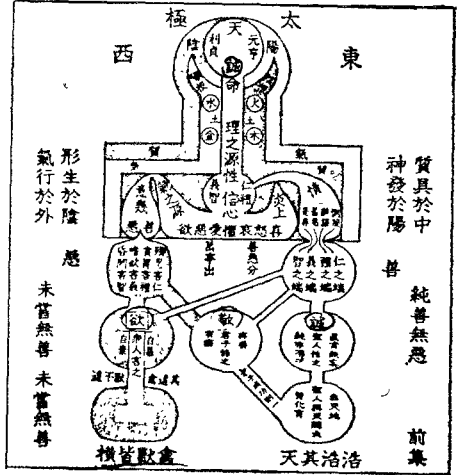
5) 金堉, 海東名臣錄.

6) 退溪全書 上 卷之 41 雜著 pp.911~915.

各部分을 고치고, 없애고, 補充하여 1553年 明宗 8年에 完成된 것으로, 한 圖에 天圖과 地方을 그림의 外形으로 삼아 理妙, 氣凝의 天命 밑에 人圖을 그리고 다시 그 밑에 禽獸橫生과 草木逆生의 動植物圖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太極 陰陽 五行의 天命에 따라 人性이 支配되고 또 支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李相殷은⁷⁾ 天命新圖를 陽村 權近의 天人心性合一圖⁸⁾를 더 한층 發展시킨 것이라고 主張하며 兩者間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比較的 詳細하게 論證하고 있다.



〈圖 1〉 天命新圖(李滉 1553)



〈圖 2〉 天人心性合一圖(權近, 1390, 1397)

이제 退溪先生의 天人心性合一思想을 天命新圖와 天命圖說後叙를 通해서 要約해 보면 天人은 共히 同一한 運氣에 依해 支配되고 있는 것으로, 天 곧 宇宙의 理致는 太極에서 始作하여 陰陽 그리고 五行으로 이어지는 無極之眞, 二五之精이 妙合而凝하는 것이 天命圖이고, 無極之眞이 곧 理이고 二五之精이 곧 氣로 보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理氣는 곧 人圖에서 性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곧 天人心性이 合一된다는 思想이며 그것은 中國의 陰陽五行說에 淵源된 것이다.

다음으로 宇宙의 理致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의 心性圖에 對한 退溪先生의 人間觀을 天命新圖와 心統性情圖⁹⁾를 通해서 살펴보자. 먼저 天命新圖의 心性圖(○)을 살펴보면, 氣와 質을 左右 양편에 갈라서 表示하고 圓內에 性과 敬을 中心으로 仁義禮智의 四德으로 表示하고 있다. 이는 곧 理가 發하기 前의 敬의 境地에 있는 四端(惻隱, 羞惡, 辭讓, 是非)을 四德으로 表示한 것이 아닌가 推論된다. 따라서 마음이란 虛하고 靈해서 性情을 兼有하나 氣質이란 本然의 性이 아니므로 發할 때 敬이 따르지 않으면 情 卽 七情(喜怒哀懼愛惡欲)에 지나치게 흐를 可能性이 있기에 純善의 狀態를 維持한 四端으로 發하기 前의 四德의 狀態로 表示하고 있다. 다음으로 心情圖(心)을 살펴보면, 心이 發한

7) 李相殷著, 退溪의 生涯와 學問, 瑞文堂, 1973, pp.196~205.

8)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解釋圖 心條 參照.

9) 退溪全書 上 進聖學十圖節 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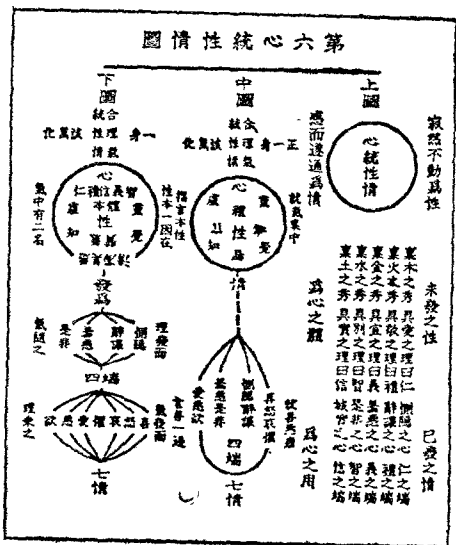
狀態가 곧 意요 四端은 주로 理에서 發하고 七情은 주로 氣에서 發하나 敬의 程度에 따라 四端과 七情이 더욱 더 明瞭하게 分離되며 善惡의 幾微도 달라진다고 主張한 것으로 推論된다.

心統性情圖는 天命新圖의 人圈을 더 具體化하고 明瞭化시켜 놓고 있는 圖이다. 이는 그 製作年代로 보아도 天命新圖는 先生이 53歲가 되던 1553年이고 聖學十圖는 晩年の 力作으로 68歲되던 1568年の 著述이다.

心統性情圖의 上圖는 程子の 說을 그대로 圖示한 것이요, 中圖는 마음의 原型 卽 外界의 事物에 感染되지 않고 氣稟이 中에 있는 本然의 性의 狀態이고, 下圖는 마음의

顯現 卽 外界의 事物에 接하여 感染되어 僞나 惡까지를 包含한 狀態를 圖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四端과 七情이 明瞭하게 分化되면서 四端은 理發而氣隨之이고 七情은 氣發而理乘之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위의 天命新圖의 人圈과 心統性情圖를 通해서 退溪先生의 人間觀을 살펴보면¹⁰⁾ 無極之眞과 二五之精이 妙合而凝하는 宇宙 自然의 理致와 同一한 理致에 支配되고 있는 人間은 理를 體로 氣를 用으로 가지되 人間의 本然의 心性은 氣品이 中에 있는 善한 存在이라는 性善說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考究컨대 孟子의 人皆有不忍人之章¹¹⁾이나 牛山之木章¹²⁾에서 解釋되는 마와 같은 典型的인 先天性이나 環境에 따른 自然形成說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形成을 爲한 強力한 實踐論을 強調하고 있다. 退溪先生이 朴深之에게 보낸 書簡¹³⁾에서 「사람의 한몸에는 理와 氣를 다 兼有하고 있으나 理는 貴하고 氣는 賤한 것으로, 理는 順理에만 따르고 氣는 欲이 따르기 쉽기 때문이다. 理에 따라 實踐하는 사람은 氣를 길러도 中을 지키니 聖賢들이 그러하고, 偏僻하게 氣를 기르는 자는 반드시 性을 褻롭게 하니 老子와 莊子가 그러하다」하여 養性, 養氣論을 提起하고 있다. 卽 이와 같은 所論은 老子나 莊子가 理를 體로 氣를 用으로 타고 난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養性, 養氣(偏僻하지 않게 中을 지키는)의 方向과 그 一貫性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意味에서 退溪先生의 理貴氣賤論은 實踐論의 側面에서 볼 때 「氣發」 卽 情을 더 重視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退溪先生의 人間



〈圖 3〉 心統性情圖(李滉 1568)

10) 李相魯, 性格構造와 力動論에 關한 東西洋의 比較考察 金學守博士 華甲記念教育論叢 pp. 172~176 參照.

11) 孟子 卷三 公孫丑章.

12) 上場書 卷十一 衍字章句.

13) 退溪全書, 上, 書, p. 335.

觀은 곧 그의 教育方法論의 背景이 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退溪先生의 人間觀에서 生成되는 教育目的論을 살펴 보자.

우선 朝鮮朝時代의 教育을 세가지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爲己之學이다. 爲己之學이란 經學, 性理學과 같은 것으로 道學 또는 君子之學이라 불리우고 人間이 지녀야 할 學識(四德과 五倫을 中心으로 한), 人格(賢人, 君子, 聖人)과 德行을 닦아감을 目的으로 하는 學이요, 둘째는 爲人之學이다. 爲人之學은 科擧學, 功名之學이라 불리우고 立身 出世를 目的으로 하는 詞章之學이나 經世之學을 말함이요, 세째는 흔히 雜學이라 불리우고 中人들이 職業을 目的으로 修學하는 醫學, 譯學, 天文學, 地理學, 算學等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退溪先生은 비록 登科하여 官職에 머물기를 10년에 가까웠으나 그 間에 官職에서 물러나기 위한 辭狀, 啓, 疏를 53回나 올리고 있다. 官職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뜻이 主로 謙讓之辭로서 一貫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그 當時의 政治的 狀況을 미루어 姻戚들의 派黨과 不當한 人材登用等 여러가지 推論될 수 있는 面도 있으나 그 本意는 爲己之學을 깊이 닦고자 함에 있는듯 하다. 또 六條疏와 聖學十圖 그 劄子是 退溪思想의 集結體요 結晶體로 보아도 좋을듯 하다. 왜냐하면 先生이 作故하시기 2年前에 마지막 王室에 보내는 奉仕요 忠誠으로 힘들인 力作이기 때문이다. 이 六條疏의 第三條와 聖學十圖中 第五圖까지가 곧 退溪教學思想의 結晶體로 보여지며 그 또한 爲己之學의 原理를 根幹으로 하고 있다.

戊辰六條疏 第三條에 따르면¹⁴⁾ 「聖學을 敦篤히 하여 政治의 根本을 이룩하셔야 하며…精一執中이 學問하는 으뜸되는 法則이니 政治 또한 이 으뜸되는 原理에서 나온 것입니다…大學의 格物致知 誠意正心과 中庸의 明善 誠身이 바로 이것이요…大學과 中庸의 章句와 或問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經典에 따라 공부하여 참되게 알고 實踐하는 學問을 하면 文明이 中天에 빛나, 눈만 뜨면 보는 것만 같고 大道가 앞에 있어 발만 들면 行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上疏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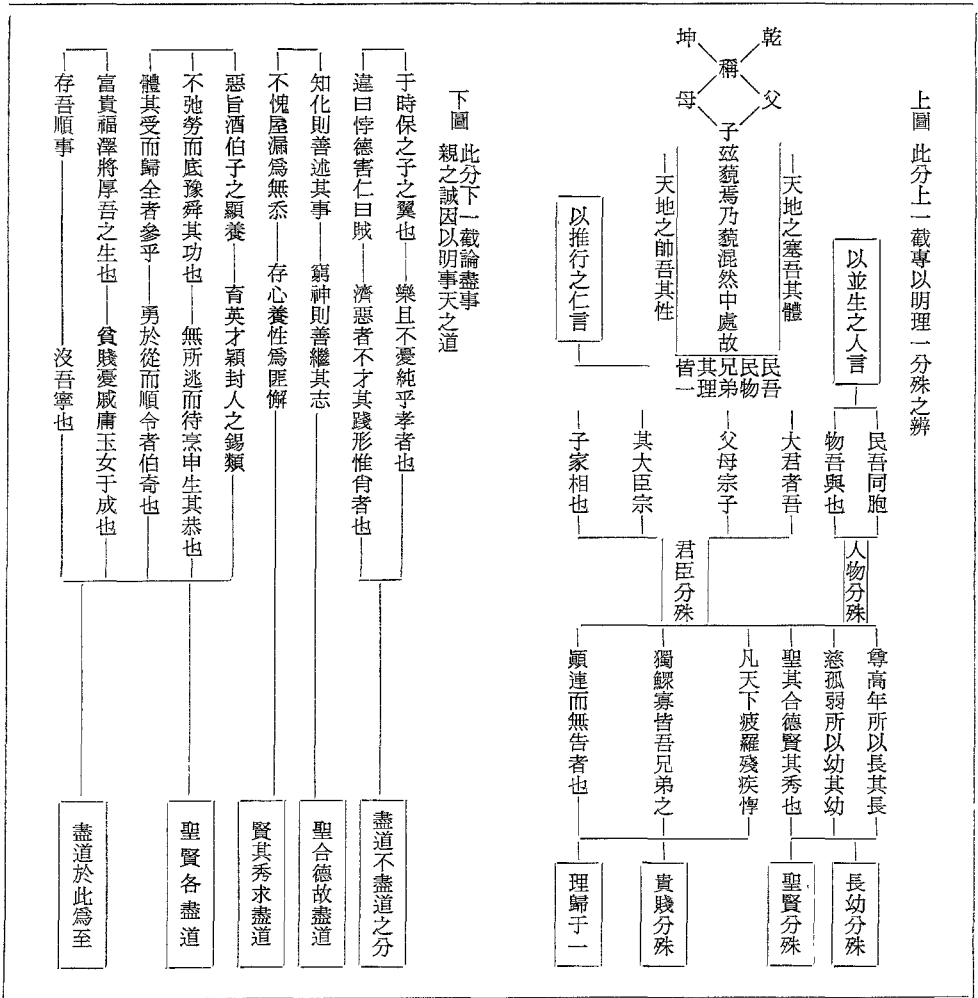
退溪先生은 어린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 劄子¹⁵⁾의 洞規(白鹿洞規圖) 後叙 末尾에 “以上 다섯圖(第一圖~第五圖)는 天道에 基本을 둔 것으로 이 공부는 人倫를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데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제 그 主된 것을 살펴 爲己之學을 強調하고 있는 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西銘圖의 後叙에서¹⁶⁾ 「天下에서 病들고 殘疾한 사람들과 아비 없는 子息, 자식없는 아비 그리고 홀아비와 과부들은 다 그 兄弟가 甚한 患難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者이다. 이들을 잘 保翼할 것이요, 즐거워하고 근심하지 않음이 孝의 純粹함이요, 德을 어기는 것을 悖德이라 하고 仁을 害치는 것을 賊이라 하며 惡을 行함을 不在라고

14) 退溪全書, 上, 疏二, pp.181~183.

15) 退溪全書, 上, 劄子, pp.218~224.

16)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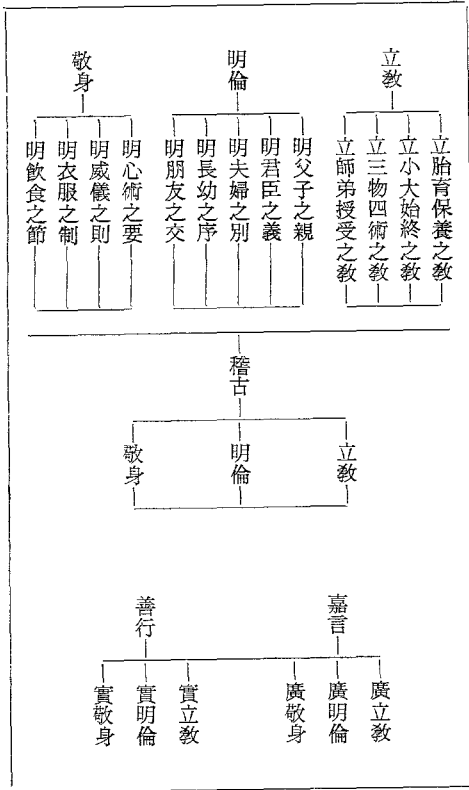
〈圖 4〉 西 銘 圖 (李滉, 1568)

풀이하면서 上圖에 長幼分殊, 聖賢分殊, 貴賤分殊, 理歸于一을 圖解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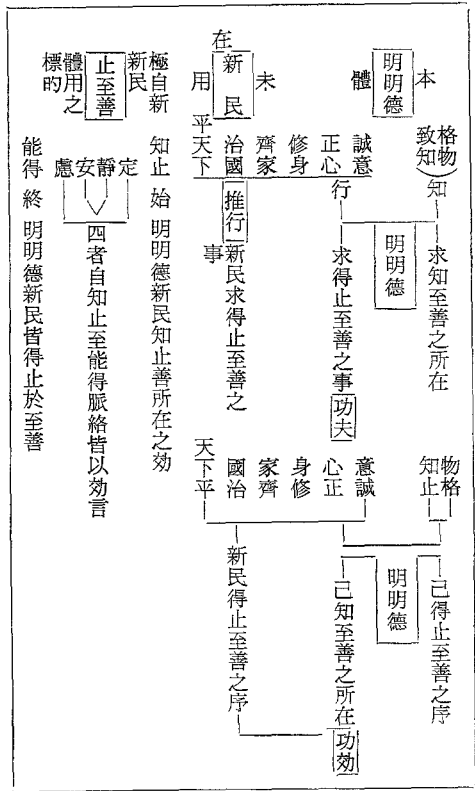
또 小學圖¹⁷⁾에 立教, 明倫, 敬身에 대한 稽古와 嘉言 善行을 圖解하고, 大學圖¹⁸⁾에서 格物致知와 意誠, 心正, 身修, 家齊, 國治, 天下平으로 明德을 밝히고 百姓을 다스리는 理致를 圖解하고 있다. 白鹿洞規圖¹⁹⁾에서는 五倫을 으뜸으로 強調하면서 窮理하는 方法으로 博學審問, 慎思, 明辨을 強調하고 修身, 處事, 接物의 原理로서 여섯가지의 篤行을 풀이하면서 圖解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爲己之學의 原理이다. 따라서 退溪先生은 곧 爲己之學의 理念을 教育의 目的論으로 삼고 있던 것으로 推論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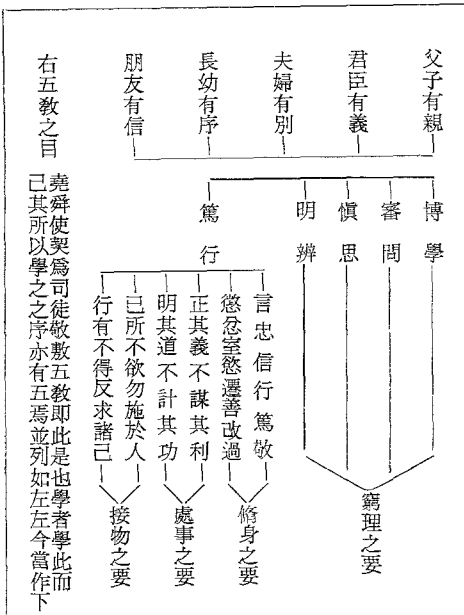
17) 前揭書.
18) 前揭書.
19)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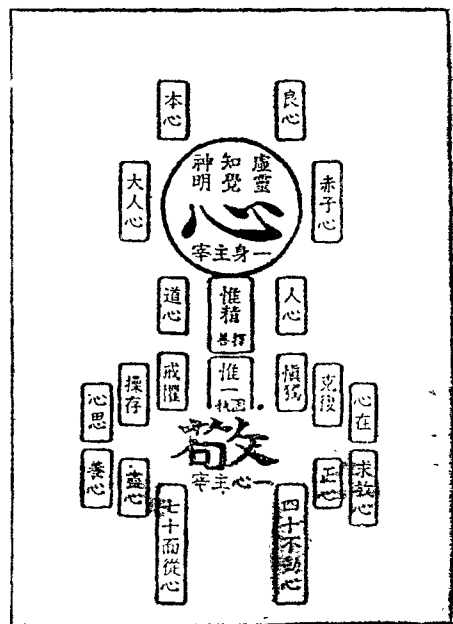
〈圖 5〉 小學圖(李滉, 1568)



〈圖 6〉 大學圖(李滉, 1568)



〈圖 7〉 白鹿洞規圖(李滉,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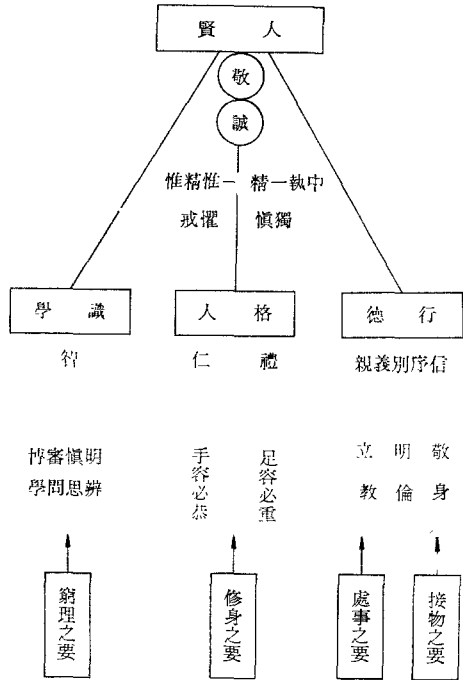


〈圖 8〉 心學圖(李滉, 1568)

退溪先生이 強調하는 爲己之學이란 聖人들을 본받아 賢人이 되게 함을 教育의 目的으로 삼고 學識과 人格 德行을 明辨, 體得, 實踐하는 것을 教育目的의 主軸으로 삼으면서 特히 知行合一을 強調하고 敬과 誠 같은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態度를 培養하는 것을 배놓을 수 없는 教育目的으로 삼고 있다. 그 例로 天命新圖(圖 1 參照)의 心性圖의 中心部에 性과 敬을 나란히 두고 心情圖의 中心部에 敬과 四端을 같이 두고 있는 것이나 心學圖²⁰⁾에서 心은 一身의 主宰이고 敬은 一心의 主宰라고 表現하여 圖示한 것이 바로 그 代表的인 例이다.

以上에서 다루어 退溪先生의 教育目的論을 要約 圖示하면 <圖 9>와 같이 表現될 수 있을 것으로 推論된다.

<圖 9>의 模型은 賢人을 養成함을 窮極의 目標로 하며 學識과 人格 그리고 德行의 三大領域을 그 下位目標로 分化시켰다. 이와같은 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主된 教育內容과 方法의 原理들을 그 사이에 適切하게 配置하였으나 그 位置와 關係가 退溪先生의 教育思想과 꼭 符合될 것인지는 더 넓게 文獻들을 慎思 明辨하여 補完되고 修正되어야 할 점이 있으리라 思料된다.



<圖 9> 退溪 李滉의 教育目的 模型

III. 教育方法의 原理

退溪先生은 위와 같은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먼저 무엇을 어떻게 學習하고 또 努力(篤行)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가?

먼저 그 必須의 教育內容으로 四書(大學·中庸·論語·孟子)를 들고 있다. 退溪先生이 戊午年에 栗谷 李珥先生에게 答申한 書簡에 大學을 工夫하기를 勸獎하며 大學章句와 或問에 깊은 關心을 갖도록 勸獎하고 있다. 그다음 書簡에서는 또 中庸을 읽도록 勸獎하며 中庸의 各章을 解說까지 붙여 問目들에 答하고 있다.

또 戊辰六條疏의 第三條에서도 임금에게 大學과 中庸을 비롯한 聖學을 敦篤히 工夫하기를 進言하고 있다. 先秦儒學이 五經(周易·書經·詩經·禮記·春秋)을 經典으로 가장 重視하던 風潮가 宋代의 程朱學派에 이르러 五經보다는 四書를 으뜸으로 더 重視하였던

20) 退溪全書, 上, 聖學十圖, 前揭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程朱學派의 學統에 가장 影響을 많이 받은 退溪先生으로서는 當然하고 또 修己之學으로서는 四書의 內容들이 가장 適切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四書는 勿論 修己知學에는 心學을 敦篤히 해야하니 心經附註, 性理大全, 朱子大全도 대단히 重視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떻게 工夫해야 하는가의 方法의 問題이다. 智를 길러 學識을 높이기 위해서는 白鹿洞規에 따른 窮理之要 即 博學, 審問, 慎思, 明辨을 強調한다. 그러나 그를 敦篤히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主宰者 即 敬을 強調하고 精一執中을 強調하고 있다. 戊辰六條疏의 第三條²¹⁾에서 「精一하게 가지며 中을 잡는것은(精一執中) 學問을 하는 큰 方法이오니 큰 法으로서 큰 根本을 세우면 天下의 政治가 모두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였고, 또 聖學十圖 劄子 總論²²⁾에서 「다음은 至極히 虛하고 靈해서 그 無限하고 靈妙한 마음을 가지고 顯著하고 眞實한 理致를 求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思하면 얻고 審하던 聖人이 되는 것이 어찌 오늘날의 徵驗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無限하고 靈妙한 것이라 하더라도 萬若에 그를 主宰하는 것이 없으면 일을 당하여도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理致가 顯著하고 眞實하다 하여도 萬若에 觀照하지 않으면 恒常 눈 앞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進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單純한 博學, 審問, 慎思, 明辨 만으로서가 아니라 敬을 敦篤히 하고 精一執中하는 態度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人格을 練磨하는 方法은 곧 修身之要이다. 이는 德行을 닦는 方法과 뚜렷하게 區分되기 어려우며 立教, 明倫, 敬身을 持續적으로 努力해 가면서 特히 心術을 밝히는 要領과 威儀를 바르게, 衣冠을 端正하게 하는 規則과 制度에 따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敬身に 힘써야 하고 容貌은 밝고 端正하게, 手는 恒常 恭敬하는 姿勢로 足은 恒常 무겁게 居動하는 修身에 힘써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그리하여 學習하고 實踐하는 方向은 반드시 智를 밝혀 가며 四德과 五倫을 그 根幹으로 삼고 있다.

끝으로 退溪先生은 教育方法論의 原理를 格別히 強調하고 態度教育論을 方法論의 가장 中心에 두고있다. 이 態度教育論은 앞에서도 漸時 言及한 바 있는 敬의 思想이요 誠의 思想이요 惟精惟一과 精一執中의 思想이요 戒懼慎獨의 思想이다.

勿論 이와 같은 概念들은 孔·孟으로부터 程朱에 이르기까지 使用해 오지 않음은 아니다. 그러나 工夫해 가는 가장 中心概念인 同時에 上位概念으로 發展시켜 가며 보다 具體化한 것은 亦是 退溪先生의 所論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흔히 存養이란 靜의 狀態에서의 工夫요 省察이란 動의 狀態에서의 工夫하는 態度라고 한다. 그러나 存養과 省察 共히 強力한 敬의 뒷받침이 있어야 道를 얻을 수 있는 工夫가 된다. 이런 意味에서 前 述한바 있는 敬을 곧 一心의 主宰者로 位置지워 놓은 것 같다.

21) 前揭書.

22) 前揭書.

工夫해야 할 對象이 되는 外界의 事物 事件이나 사람(自身) 그리고 이들 關係 속에 介在하고 있는 原理들은 深奧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 對象들을 對하는 態度는 곧 戒懼 慎獨이어야 하고 이 戒懼 慎獨의 本體가 곧 敬이요 誠이 뒤따라야 한다. 精一執中하는 姿勢, 中을 잡을 수 있는 姿勢도 敬과 誠을 通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見解이다.

Ⅳ. 結言—退溪教育學說의 現代的 觀照

어떤 教育思想이던 한 教育思想은 그 思想이 지나는 時間性和 空間性에 따라 相當한 差異를 보이기 마련이다. 思想의 時間性이란 곧 어느 時代의 理論이며 그 時代의 社會的 文化的 背景이 어떻게 投影되고 있는냐의 問題이고 思想의 空間性이란 어느 地域에서 發生된 理論으로 어떤 傳統이나 慣習 그리고 價值觀을 繼承하고 있는 理論이나 問題이다. 그러기에 退溪先生의 教育思想 또한 16世紀 中葉에 韓國에서 形成된 思想으로 그 속에는 未分化된 產業社會, 精神文化에 注力이라는 歷史的 背景 속에 東洋固有의 儒學的인 價值觀과 性理學의 人間觀이라는 傳統的 意識構造들이 投影되고 있다.

그러나 그 反面에 어떤 思想이던 그 思想에는 時間性和 空間性を 超越한 보다 本質的이고 普遍的인 側面이 있기 마련이다. 教育學說에서 보다 本質的이고 普遍的인 思想이란 그 目的을 個個人의 人間形成에 둔 比較的 크게 時空性에 影響을 받지 않는 普遍的 原理를 말한다. 堯舜時代나 그리스時代의 教育이 비록 數千年을 거슬러 올라간 옛時節의 教育思想에 支配되던 教育行爲이고 더우기 그 時代는 東西間에 思想이나 文化的 疏通이 斷絶된 狀態에서 各己 獨立的으로 進行되던 教育行爲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옛날의 教育思想 中에 적지 않은 部分이 現代的 歐美나 韓國의 教育思想家들에게 受容되고 共感되는 部分이 있다. 그것은 곧 脫文化的이고 脫이데올로기의이고 脫政治的인 純粹한 教育에 對한 理論으로 그들 文化, 이데올로기 그리고 政治로부터 獨立된 教育 固有의 思想이고 理論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한 理論을 現代的인 觀照라는 말로 쉽게 論議하고 批判하기도 한다. 그러나 現代라는 準據下에서 論議하더라도 論議되는 그 下位準據는 多樣하다. 그러기에 筆者는 여기에서 教育學說이 지나는 普遍的 原理에 限해서 論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時代에 따른 文化의 特色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政治들은 때때로 教育 本然의 目的마저도 忘却하고 지나치게 文化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政治的 目的으로 脚色시켜 教育의 本質마저도 歪曲시켜 버리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退溪先生의 教育理論은 첫째로, 教育 本然의 目的에 忠實한 教育固有의 普遍的 原理를 中軸으로 하는 教育理論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爲己之學을 中心으로 하는 理論이기 때문이다. 萬若 그것이 爲人之學을 中心으로 하는 理論이라면 자칫 政治體制나 國家(治國平天下)를 爲한다는 美名下에 脚色되어 教育의 本質이나 教育本然의 目的을 歪曲시키기

쉽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치게 修道에 置重된 爲己之學을 中心으로 하고 있는 退溪先生의 教育理論은 賢人社會를 通해서만 社會나 文化에 寄與코져 함으로써 自然히 物性이나 技能 그리고 合理的인 生活知識을 비롯한 實用性있는 生活學(雜學)이 輕視되고 있다.

둘째로, 退溪先生의 教育理論은 오늘날과 같은 人間性喪失, 安逸主義, 僥倖主義에 警覺心を 불러 일으키고 理에 順從하는 人間教育의 原理를 提供하고 있다. 四書를 中心으로 하는 教育內容은 四德과 五倫을 修己의 基幹으로 삼고 理와 氣를 精一執中하는 存養과 省察의 強調는 마땅히 오늘날의 社會에 있어서도 人間性回復을 爲하여 꼭 이루어져야 할 人間教育의 原理이다. 비록 退溪先生으로 부터 始發된 것은 아니나, 五倫은 教育의 普遍的 指標이다. 親·義·別·序·信이라는 橫的이고 對等한 人間關係의 高揚은 現代社會 뿐만 아니라 未來의 社會에 있어서도 人間性 高揚을 위한 教育의 普遍的 指標가 되어야 마땅하다.

孔孟의 思想은 흔히 性善說의 樂觀論으로 解釋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退溪先生의 見解는 좀 다르다. 理와 氣가 合하여 마음이 되었다는 뜻은 人間이 貴한 理와 賤한 氣를 共히 兼有하고 있다는 뜻이고 智愚와 偏塞이 生得的인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理乘氣隨의 程度에 따라 差異가 나타나 理乘氣隨의 程度는 敬의 姿勢로서 戒懼慎獨하며 博學慎思 篤行의 結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주만 믿고 勉學하지 않거나 努力의 代價가 아닌 僥倖主義를 警戒하면서 宿命論的 見解를 排擊하고 있다.

셋째로, 敬의 思想을 中心으로 惟精唯一, 精一執中, 戒懼慎獨의 理論體系를 深化 定立하여 態度教育理論을 크게 發展시키고 있다.

物質至上主義에 偏在되고 있는 現代社會는 外顯的인 知識과 技能 一邊到의 教育으로 치달고 있다. 그러기에 成就된 知識이나 技能마저도 人間의 內面世界에 크게 深化되고 人間化되지 못하는 人間疏外의 教育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弱點은 退溪先生의 態度教育論의 繼承과 實踐으로 克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40年代의 美國教育課程理論에 教育目標의 準據를 理解, 態度, 技能으로 三分하였으나 亦是 態度教育은 말로만 그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나마도 輕視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곧 態度教育理論의 不在에서 오는 結果가 아닌가도 싶다.